



“공익성 없는 민간개발사업 특혜 제한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제주자치도 국정감사

이헌승 의원, 제도개선 요구… “JDC 시세차익 1조753억” 공시지가 상승 부작용으로 기초연금 탈락 구제안 주문

8일 열린 제주도 상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 국정감사에서 신화역사공원 등 민간 영리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특혜를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헌승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부산진구)은 이날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강제 수용권을 부여하고 토지 수용에 따른

보상액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법에 의해 민간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공익사업 특혜를 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지난 1년간 제주 땅값 집값이 2.6배 오르는 동안 실제 원주민들은 혜택을 못봤다”며 “JDC가 영어교육도시, 신화역사공원, 첨단과학단지, 헬스케어타운 등 매

과정에서 1조753억원 넘겼지만 시세차익은 JDC보다 외국인들이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민간 사업에 특혜를 주면 공익의 필요성이 보이지 않는다”며 “앞으로 공익성이 없는 민간개발사업은 강제 수용이나 특혜주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옳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또한 공시지가 상승으로 제주도 기초연금 탈락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이어졌다.

이해훈 의원(바른미래당·서울 서초구)은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

방향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주도가 가장 큰 욕탄을 맞았다”며 “서울보다 재산세가 올라 도민 부담이 커졌다”고 우려했다. 이어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해서 생활비 지원을 끊어버리면 안된다”며 서초구에서 추진하는 탄력세율 적용 방안 검토를 요구했다.

원 지사는 “복지부에 기초연금 선정기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며 “기초 연금에 탈락하신 농지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별도로 일자리 제공하는 등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sj@ihalla.com



8일 제주도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주도 제공

버스준공영제·차고지증명제 확대… 국토위 의원들 “실효성 있는 대책을”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제안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도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침차게 대중교통체계를 추진하면서 도입한 버스준공영제와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따라 드러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보완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주문됐다.

8일 제주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이 보도자료를 통해 지적한 제주현안의 문제점을 짚어본다.

▶버스준공영제·차고지증명제 보완 필요=민주평화당 대표인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시 병)은 “제주도가 2017년부터 도입한 버스 준공영제가 심각한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버스 준공영제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표준운송원가 산정, 버스운송업체 임원 등 인건비 지급 내역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 차량의 차고지 등록이 의무화됐지만 도내 43개 읍면동 지역 중 16개 지역에서 등록차량 대비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해 도민들이 차고지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간 의료 불균형 심각=임종성 의원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의료시설 불균형 문제를 꼬집었다.

임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제주시에 위치한 의료기관의 수는 1차병원 647개, 2차 병원 20개에 달했지만 서귀포시의 경우 1차 병원 207개, 2차 병원 4개에 불과해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 숫자를 지자체별 인구수에 대비시켜보면 제주시의 경우 1차 의료기관 1곳당 수혜인원은 781명, 2차 의료기관은 2만5251명인 반면 서귀포시는 각각 923명, 4만7782명까지 늘어난다. 이와함께 2차 의료기관이 대부분 동 지역에 분포돼있는 지역별 쏠림 현상도 문제로 지적됐다.

▶환경보전기여금 공론화 필요=안호영 의원은 현재 제주도가 운영을 진행해 검토 중인 ‘환경보전기여금’에 대해 “입도세는 위헌의 소지와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에 있어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입도세의 목적이 환경보전이라고 하지만 결국 관광객에게 부담을 줘 관광객이 줄어들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외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 을)은 “일부 지역 10대 중 2대는 주차면 없이 떠돌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제주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도 전 지역으로 확대된 차고지 증명제에 따라 중·대형 비사업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지난 7월부터 시행한 차고지증명제 확대에 의해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농어촌의 경우 차고지 확보가 힘들고 자기 토지가 있어도 개발행위허가, 농지산지전용허가 등 많은 절차들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예외적으로 관광업에 대한 면제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정동영 의원은 “문제인 정부가 제주에서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전기차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기차 충전서비스 특구’ 지정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차량진입 저지… 정당성 떠나 공무집행 방해”

박순자 위원장, 방지대책 요구 ‘버스 깔린 주민’ 보도엔 유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박순자 의원)가 8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 상대 국정감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날 제주 제2공항 반대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이 탄 버스를 가로막는데 대해 “정당성을 떠나 공무집행 방해”라며 우려했다.

민경욱 의원(자유한국당·인천 연수구)은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노기드문 사태”라면서 “헌법 기관의 의정 행위를 방해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항의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제주도는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깊은 유감”이라며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용인해서는 안될 일”이라고 제발방지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순자 위원장(자유한국당·경기 안산시 단원구)은 “국정감사 위원을 막아서는 행위는 취지의 정당성을 떠나서 공무집행 방해”라면서 “원지사는 제발방지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다.

특히 조용천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시갑)은 포털에 ‘제2공항 반대하다가 국회의원 탄 버스에 깔린 주민’이라는 제목의 뉴스를 확인하고 “국회와 국토위의 권능에 위해가 되는 기사”라며 “주민들의 의사를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제하고 기다리면서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노력했는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박 위원장은 사실관계 확인을 제주도에 요청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파악해서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동영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병)은 국감에 앞서 의사진행 과정에서 “찬성측, 반대측 주민 1명씩 방청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위원장은 “민간에게 방청을 허가한 경우가 없었다”며 “원활한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찬반 주민 방청을)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소진기자

도, 만3세 아동 전수조사 12월까지 소재·안전확인

제주특별자치도는 10월부터 12월까지 만 3세 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인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초등학교 취학 대상 아동의 경우 교육청에서 2017년부터 예비조사 과정 등을 통해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하고 있으나 미취학 아동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왔다”며 “만 3세는 가정양육에서 공격 양육체계(유치원, 어린이집)로 진입하는 나이로 아동이 본인의 의사를 적정수준으로 표현할 수 있어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탐라문화제 성공 기원 탐라개벽신위제 제58회 탐라문화제 개막을 하루 앞두고 8일 오전 제주시 도심 삼성혈 제단에서 초헌관 부재호 제주예총 회장, 아헌관 박호형 제주도의원, 중헌관 나경환 제주건축가회 회장이 제관으로 참여해 탐라문화제 성공 기원 ‘탐라개벽신위제’를 봉향하고 있다. 이상근기자

도는 2015년도 출생아동 2만2219명 중 유치원·어린이집 재원이 확인된 아동을 제외한 가정 내에서 양육 중인 아동 283명을 중심으로 방문조사할 예정이다. 오은지기자

전세 렌터카

2018. 12. 17. 제23회 소비자의날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 평가 대상 수상

4년동안 타던 차를 반납하면 전세보증금처럼 새차 탈때 낸 금액을 100% 돌려 받는 새로운 렌터카 서비스 당신의 자산과 가치를 지켜주는 카터크의 시작 전세렌터카로 갈아타세요!

차고지증명제가 필요없습니다
똑같은 자동차 타는 방식으로 자산을 지키자!!

개인, 법인 사업자 경비 처리팀

매월 관리비와 기름값으로 품음선 차량을 탈 수 있다. 주행거리 제한 없는 상품. 우리카족 누구나 운전이 가능하다. 고객의 신용상태 상관없이 이용가능. 무료정비서비스는 S정비업체 사고처리하는 S화재. 4년마다 원하는 신모델 차량을 순환으로 탈 수 있다. 4년 뒤 보증금 100% 환불.

이전 자동차는 소유가 아니라 편리하고 경제적인 사용의 개념으로 보셔야 할때.

내가 원하는 국내 수입차 전차종 가능

세금 부담, 정비 부담, 보험 부담, 주행거리 제한

보험사, 정비, 안전성, 보험, S정비업체, 자금보조

WONCAR CTS매니저 박종욱 010-9104-4742

허가번호 제주 18-2017-2002호

감골묘목

유라실생 4년생

유라실생 3년생
감 평 3년생
천혜향 4년생
성전온주 4년생
황금향 4년생
하레조생 3년생
병자묘 1년생, 수고 70전

한림종묘

010-3690-2453

모든품종 감골(묘)분양

종사업등록번호 제18-2002-20-07호

◉황금향 ◉레드향 ◉천혜향 (1, 3년생)

- 유라실생 • 하레조생
- 미니향·레몬·영굴
- 한라봉 • 히로시마7호
- 오하라베니
- 천전(가와대) 온주(천지향 8년생)
- 일남일호

※ 묘목 접수 판매(1년생 묘목 접수만 취급)
★ 모든 묘목 샘플검사결과 바이러스 미검출

서귀종묘

064-733-7005, 010-6677-5753

감골묘목

- * 유라실생 1,2,3년생
- * 레드향 (무독) 1,2,3년생
- * 천혜향 (무독) 2,3년생
- * 궁천 1,2,5년생
- * 궁천 변이지 1,2년생
- * 하레조생 1,2년생
- * 일남희 (제일 빠른 극조생) 6년생
- * 한라봉 5,6년생
- * 그외 다수품종

최대규모, 최고경력, 건설육묘 35년

석파농산

농장위치 :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201-1번지
종사업등록번호 제주 18-2003-20-08

010-2699-2355